



추워진 날씨로 인해 훈련부족 등이 발생하면서 경륜선수들의 최대 시속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주에서도 이변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 움츠러든 강자들...이변의 계절이 왔다

훈련량 부족 여파로 평균 시속 감소 시즌 막바지 노장들 체력 한계 영향 '쌍승 499.8배' 박태호 우승 반전도

경륜에서 이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추의 컨디션이 정상인 아닐 경우 엉뚱한 복병에게 팀미를 잡히는 경우가 많다. 강자가 다수인 편성에서는 강자들의 맞대결로 복병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최근에는 등급심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강급이나 퇴출을 면하기 위해 승부욕과 집중력을 발휘하는 선수들에 의해 이변이 일어나기도 한다. 추워진 날씨의 영향도 이변의 원인으로 꼽힌다.

### ●날씨가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

쌀쌀한 겨울이 다가올수록 선수들의 최대 시속이 떨어지고 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선수들의 훈련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이다. 선수들 대부분이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오전훈련을 제대로 못하고, 오후부터 훈련을 시작한다. 그렇프리 대상경륜과 거리가 먼 선발, 우수급 선수 중 일부는 일찌감치 동계훈련에 참여하기도 한다.

경정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의 최대 시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회차에서는 선발, 우수, 특선급 모두 200m 랩타임이 0.5~0.8초 가량 낮아졌다. 특히 전반적인 선행 시속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머릿급 선수가 선행을 나설 경우 복병급 선수에게 팀미를 잡히는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 ●인기순위 7위의 반란과 쌍승 499.8배

11월24일 토요일 부산 8경주에서는 조봉희가 복승 축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전 경주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뒷심 부족을 보이면서 차외로 빠지는 대이변이 발생했다. 당시 조봉희는 한 바퀴 타점에 맞춰 긴 거리 승부를 선택했다. 하지만 선행시속이 빠르지 않아 인기순위 2위였던 김치권이 쫓기 반격에 나섰고, 인기순위 7위였던 박태호가 김치권 뒤에서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쌍승 499.8배(1위 박태호, 2위 김치권)의 초고배당이 터졌다.

11월24일 창원 선발 8경주에서는 노성현이 강자로 나서는 상황이었지만 역시 선행 시속이 예상보다 낮아 성적은 기대 이하였다. 결국 복병으로 취급받았던 김영규에게 역전 추입을 허용당하면서 쌍승 45.3배(1위 김영규, 2위 노성현)의 고배당이 나왔다.

"마지막 한바퀴" 장학순 예상팀장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선수들의 평균 시속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공산이 크다. 노장급 선수들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시기인만큼 선수들의 컨디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빠질 경우를 염두하고 배팅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 불법사행산업 근절 업무협약 체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와 부산 스포월드,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은 11월28일 올림픽파크텔에서 불법 사행산업 근절 도모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사진)을 가졌다. 이들 기관들은 앞으로 불법 도박 예방 단속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제도개선, 불법도박(온·오프라인) 합동단속 협력, 불법도박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정례·실무회의 개최를 통한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모터 기력 하향화...경정 판도 바꾸나

직선력 중요...경주 스타일 변화 선회·운영 비중 고참급들 '고전'

경정이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온라인 스타트 방식을 도입했고 프로펠러 고정제는 프로펠러 개인 소유제로 변경됐다. 또한 1200m경주와 1800m경주를 혼용해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요즘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모터의 기력이다. 소음 방지를 위해 감응형 장비를 도입하면서 전체적으로

하향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 4월에 첫 투입된 모터와 보트도 초반에 선수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전반적인 파워가 떨어진 상황이다.

소개항주 기록이나 완주기록도 예전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예전에는 수온이 낮아진 겨울철에는 소개항주 기록이 6초대 중반을 기록했고, 최상급의 모터의 경우 6.4초대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1800m 세 바퀴 완주타임도 2014년까지는 1등 기록이 1분 40초대 후반이었다. 김중민 같은 정상급 선회력의 선수들은 1분

40초대 중반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1등 완주 기록이 보통 1분 52~54초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전반적인 경주 시속이 예전에 비해 많이 느려지면서 경주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그로 인해 이에 적응하지 못한 몇몇 고참급 선수들은 눈에 띄는 성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진, 사재준, 정민수, 권명호, 나병창 같은 1·2기 노장 선수들은 스타트로 경주 초반부터 주도하기보다 선회력 섧팅에 초점을 맞춰 역전을 노리는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터의 파워가 떨어지면서 예전 같은 역전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경주, 1200m 경주 등이 도입되면서 입지가 더 좁아졌다. 빠

른 스타트 보다는 안정적인 선회와 운영으로 역전 승부를 노리는 장점이 사라졌다.

경정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선회 파워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직선력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조금이라도 몸무게가 가벼운 선수들이 유리한 상황이고 초반에 승패를 결정짓는 스타트 능력도 중요해졌다. 최근 몇 년간 여성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이유도 찌르기가 대세이고 직선력이 중요한 경정 스타일에 잘 맞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그동안 선회나 운영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경주를 풀어왔던 선수들은 초반에 승부를 결정짓는 스타트 능력을 좀더 키워야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용운 기자

### 권역별 찾아가는 희망길벗 캠페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1월15일부터 22일까지 시흥·수원·일산·대전지점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희망길벗 캠페인'을 시행했다. 희망길벗이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 전문상담사와 기초상담사 등이 찾아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자기진단테스트를 실시, 배팅수관을 되돌아보고 1대1 현장상담을 통해 건전레저스포츠로 경륜경정을 즐길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희망길벗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중독 예방 및 치유 심리상담 전문센터다. 상담 희망자는 전화(080-646-5000) 및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신한은행, KB스타즈 잡고 6연패 탈출?

농구토토 W매치 74회차 발매 KB, 이전 경기서 89-61 대승

'6연패의 신한은행을 상대로 KB스타즈가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오는 5일(수) 오후 7시에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KB스타즈(홍)-신한은행(원정)전을 대상으로 농구토토 W매치 74회차를 발매한다.

1경기 양팀의 전반(1+2쿼터)과 최종(전반 합산) 점수대를 맞춰야 하는 W매치 게임에서 이번 회차의 관건은 KB스타즈의 연승 기록 여부다.

강력한 우승후보인 KB스타즈는 지난 11월 29일 라이벌 우리은행에게 56-61로 패하면서 시즌 2패째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결과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우리은행에게는 고배를 마셨지만, 1일

펼쳐진 삼성생명전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승부 속에 승리를 일궈내며 다시 한번 분위기를 재정비했다. 종료 직전까지 삼성생명에게 주도권을 내줬던 KB스타즈는 외국인 선수 손튼의 추격특점과 함께 강아정의 버저비터 3점슛으로 역전승을 일궈냈다. 이로써 연패의 문턱까지 갔던 KB스타즈는 극적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됐다.

이와 반대로 신한은행은 1승8패를 기록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최근 6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는 신한은행은 '에이스' 김단비까지 부상으로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면서 반등의 계기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위기 뒤 기회를 엿보고 있는 KB스타즈가 침체된 신한은행을 상대로 안방의 이점을 살려 경기운영을 펼친다면, 89-61로 대승을 거뒀던 지난 맞대결과 같은 결과가 다시 한번 반복될 수도 있는 한 판이다.

이번 농구토토 W매치 74회차는 경기 시작 10분전인 5일(수) 오후 6시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최종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 "아듀 2018! 건강한 기억만 남기세요!"

베트맨, 12월 건전화 프로그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이 12월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인 '아듀 2018! 건강한 기억만 남기세요! 건전화 프로그램과 함께 건강한 마무리!'를 실시한다.

건강한 배팅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베트맨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그리고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회원 스스로 자신의 게임성향을 진단해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이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이밖에 '건전구매 캠페인'은 올바른 스포츠토토 구매에 대해 알아보고, 건전 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도



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삼성 블루스카이 공기청정기(1명), 아이나비 중전식 손난로(20명),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2매(35명)를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트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배틀 500개를 지급한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 "당신의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다문화 다같이' 응원 캠페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스포츠로 꿈을 이루가고 있는 다문화 어린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문화 다같이'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구원 수가 97만여명을 돌파하는 등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스포츠와 같이 열린 마음으로 다문화 아이들을 응원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 영상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도전하며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다문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을 조명하며, 경쟁보다는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함께하는 즐거움과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에서는 오는 31일(월)까지 '다문화 다같이' 캠페인을 기념해 응원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